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 행 인: 이 중 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충만한 감사로 여는 11월

교회설립기념일·추수감사절 행사 다채

교회설립 제 6주년 기념일과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에는 교회적으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경암송대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6년. ‘전교인성경암송대회’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개최하는 의미있는 행사이다. 올해의 암송 대회는 이미 1년 전에 예고한 바대로 야고보서 전 장을 암송범위로 삼고 전교인이 참여하게 된다. 이미 지난 31일(금)에는 장년부, 소망부, 일반 성도 그리고 각 부 교사예선이 실시되었으며 오늘은 탁아·유치·유년·초등·중등·고등·대학·청년부의 예선이 부서별로 실시된다. 예선에서 선발된 각 부서 대표는 7일(금) 오후 7시부터 2층예배실에서 결선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암송대회 수상자는 9일(주일) 찬양예배 시

온 성도들 앞에서 암송시범을 보이게 된다.

◇감사찬양예배와 성찬식= 16일 찬양예배 시에는 교회설립과 올해의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감사찬양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찬양대 주관으로 하이든 곡 ‘천지창조’로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또 23일 주일 I·II·III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30일(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중·고·대·청년부 찬양대의 찬양으로 감사의 11월을 마무리하게 된다.

◇일꾼 임명= 23일 찬양예배 시에는 제 4대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식을 거행한다. 이들은 지난 6월 초 공동의회에서 선출되어 그간 교육을 받아왔다.

◇비전2000운동승전감사예배= 23일 찬양예배 시에는 ‘97비전2000운동의 결과를 점검하고 시상하는 승전감사예배를 드린다.

비전2000

오늘 부서별 노방전도

‘잃은 양 찾기’에도 힘쓰는 한 주

기도와 전도운동인 ‘97 비전2000운동’이 오늘로 한달째를 맞는다. 우리의 복음 전도와 기도 생활에 얼마만큼의 진보가 있었는가를 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 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다.

오늘은 부서별로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교회학교와 찬양대의 전도대상 지역은 표와 같다. 부서에 소속되지 않았더라도 모든 성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며 특별히 예배 후에 배부되는 전도지는 한 주간 동안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도하는 데에 잘 활용하도록 한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다락방·전도회·교회학교의 잃은 양을 찾는 일에 주력하는

교회학교	전도대상 지역	찬양대	전교인
유년부, 초등부, 사랑부	교회 뒷편, 보람은행 ~ 영동사거리	임마누엘	나누어가진
중등부, 소망부	제일은행 뒷편 ~ 논현국민학교 주변	가브리엘	전도지로
탁아부, 유치부, 새가족부	영동시장		이웃에게
고등부, 장년부	제일생명 ~ 강남역	할렐루야	
대학부, 청년부	노보텔, 삼성호텔 부근		

▲ 부서별 노방전도 담당지역

기간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비전2000운동 본부에서는 각 다락방·전도회·교회학교에서 장기결석자를 찾아 편지와 전화로 기도하며 심방하는 일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비전2000운동 기간에 즈음하여 중등부에서는 “현대 청소년의 고민과 교회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특강을, 초등부에서는 어린이초청 찬양전도집회 “어린 순례자의 합창”을 15일(토)에 각각 열기로 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1월 교회 주요 행사

일자	행사
2일	성경암송대회 교회학교별 예선 교회학교별 노방전도 고등부 고3기도회
7일	성경암송대회 결선
16일	교회설립 제 6주년기념 및 추수감사 찬양예배
17일	목회자신학세미나 종강
23일	교회설립 제 6주년 기념일 '97 추수감사절(성찬식) 안수집사·권사 임직식 비전2000승전감사예배
30일	새가족환영회 교사대학강좌 감사찬양예배(중·고·대·청)

✧ 순례자 컬럼 ✧

신앙의 힘

사도 베드로는 헤롯 왕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유월절 명절이 지나면 그에게는 무슨 형벌이 가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복음사업은 물론 자신의 일생도 낭패를 당했다고 원망과 불평을 할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생사에 대한 염려나 적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고통과 아픔 따위에 항복하지를 않았다.

베드로의 의지가 강하고 그의 품성이 강직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힘이 그를 이토록 강하고 담대한, 청사에 빛나는 인물로 만든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인내케 하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감사와 희망을 갖게하고 진실되게 하며 겸손케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한다.

신앙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으니 바른 신앙의 힘 위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더욱 더 밝아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22장 1 - 34절

“그 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중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와 중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와 중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때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나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거하는 땅에 가서 씌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22:1 - 34).



이종운 목사

평화를 위하여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군대를 즉시 해산 시키고 귀환조치했습니다. 자기들 기업의 땅으로 보내워 보수를 주어 보냈습니다.

1. 평안할 때에도

여호수아 후반부 장들의 주제는 전쟁 때에 하나님을 알고 섬겼듯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 간 전쟁을 하면서 공격적이고 정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 세월 동안도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했고 맑은 과업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선 이겼으나 평화를 잃은 적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 강을 건너오기 전 그 땅에서 머물기를 원했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 보내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즉 모세가 명한 것과 여호수아가 명한 것을 그들이 다 지켰다는 사실과 약속하신 땅과 거기서 평화를 누릴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이같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2. 요단 강가에 세워진 단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강가에 이르자 거기서 큰 단을 쌓았습니다(수22: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려 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하나님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이므로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전쟁으로 지쳤으며 평화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으로 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잘못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자 해체했던 부대를 다시 조직하고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싫어했지만 동쪽으로 간 형제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것들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길투였던 것입니다.

진리의 영역엔 타협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적대행위를 하였다면 형제 간이지만 눈물을 머금고라도 전쟁을 하여 이를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핍하게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3.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그러나 전쟁은 즉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큰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편으로 간 족속들에게 진군하는 행진을 하기 전 그 상황을 먼저 조사키로 하고 대표군을 파송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경외심과 형제에 대한 관

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소위 서방측)에서 파송된 대표들은 동으로 간 이들의 주관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인지 아니면 신앙인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판단함으로써 중요한 일을 오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매우 신중히 행동했습니다.

또한 공격하기 전 그들의 사랑과 관심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땅이 깨끗하지 않으면 자기들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며 함께 살자고 합니다(19절). 그곳이 전통적으로 배신의 땅, 우상의 지역이므로 자기들에게로 와서 소유지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서방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기 위해 무슨 대가라도 지불할 의지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비싼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이같은 사랑으로 복음은 전해집니다.

한편 서방 백성들의 설명을 듣고 동방으로 간 두 족속 반 지파들은 동의했습니다. 사기꾼이 아닌 참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어떤 말로 변명하지 않고 그 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벌해 주시기를 빌었습니다(22절). 그들은 자기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이들의 비난엔 동의하지 않으나 혹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겠다고 동의했습니다.

4. 아름다운 끝맺음

하나님의 교회에서 종종 성도들 간에 이같은 오해로 전쟁 일보직전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단 동쪽으로 간 지파들은 그들이 쌓은 단의 목적이 다른 신이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서방에 있는 이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섬길 것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이들 두 그룹 사이에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배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아름다운 끝맺음이 되었습니다.

또한 진리 편에서 용감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데도 용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리만을 주장했다면 형제들을 살육하고 오해로 인해 크게 후회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비극을 피하고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궁핍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시85:10).

그리스도인은 이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성품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수행키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을 조화시킨 삶은 축복된 것입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 지상중계

“교회와 국가”

이 글은 10월 27일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이인제 국민신당(가칭) 대선후보와의 질의 응답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강의요지: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독교는 우리 민족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또한 민족을 계몽하고, 젊은이들에게 근대적 세계관을 심어주었으며, 교회의 헌신적 희생으로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을 치료하고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서구에서 발원한 기독교를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찬란히 꽃을 피워 이제 다시 외국에 전하리만큼 발전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과 같이 호흡해 온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국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국민 개개인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의식의 발전은 법과 제도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동감하는 가치의 형성과 희망의 발견이며 이를 위해서는 종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국가와 종교의 상호보완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 이종운 목사: 후보께서 하신 강연 내용 중 기독교 정신은 개인의 내세뿐 아니라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갈등과 혼란에서 벗어나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지도력과 조정력은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어머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시며 아버님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론적인 면에서나 가정적 분위기나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고 또 존중하시는 후보께서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질 의향이 없으신지요?

▶ 이인제 후보: 얼마 전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내한 했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기독교인인가를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분명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역사’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그가 대답하기를 “만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독자의 반을 잃을 것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독자의 반을 잃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득표에 민감한 제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은 후에 한 교회를 정해 출석하자니 마치 정치적 소속을 위한 것

이라는 인상을 줄 것 같아 많이 망설여 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독교적 정신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귀히 여기고 그 사상을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그 후에 신앙의 문제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건국 초부터 70년대까지 미신적 요소를 타파하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전통문화’라는 미명하에 전근대적 미신행위가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에서까지 행사 때 고사를 지내는 전근대적 미신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를 철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 미신과 전통문화를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 혹세무민하는 미신과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는 행위는 법 테두리 안에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사회에 기복신앙이 관행으로 퍼져 있고 미신이 성행하는 것은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하고 국민들 사이에 절망감과 좌절감이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수준 높은 종교문화가 정립되어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회 구성원이 희망을 가지게 된다면 차차 자체되리라 믿고 여겨집니다. 공공기관의 행사는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건강한 정신생활에 폐를 끼치는 정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도를 넘는 미신 행위는 법이나 정치력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 청와대 안에 있는 불상은 기독교인들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귀하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청와대에 들어가신다면 이 불상을 본래 자리인 경주로 옮기실 뜻이 있으신지요?

▶ 저는 아직 그 불상을 본 일이 없으며 신문지상을 통해서만 스그 소식을 접했을 뿐 진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그것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다종교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모든 종교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데 가운데 서로 발전해서 국가와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 우리는 지금 극도로 부패한 사회병리현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 그리고 자살자 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처방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으로는 종교적 신앙심이 없이는 이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 질 것으로 보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종교과목을 신설하여 자기 신앙에 따라 선택케 함으로써 ‘전군신자화운동’과 같이 젊은이들에게 절대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래하는 21세기는 물질보다는 정신과 문화의 발달이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능하는 척도가 될 것이며 문화의 중심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과 윤리 도덕적 문제도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종교에 귀의하게 해서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한다면 우리 민족이 새로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도입하는 데는 국교가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선택적인 도입으로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고려해 볼만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시행할 수 있다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교계의 활발한 논의가 지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는 재벌들이 지난 10년 동안 5% 미만이라는 경이적인 통계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와의 전쟁 선언보다는 사랑으로 교화하기 위해 사설 종교교도소 제도를 도입할 뜻은 없는지요?

▶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하는 많은 일들을 가능하면 민간·종교단체에 위탁·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일을 민간에 위임하는 일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이러한 사업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례길에서

날 사랑하는 이를 기억합니다

이자혁(집사, 1교구)

삶이 힘들어 질 때면 나는 곧
나를 사랑하는 이를 기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면 나는 곧
나를 사랑하는 이를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과 고통을 참으신
그분의 인내를 보기 때문입니다.

절망하고 좌절될 때
나는 날 사랑하는 이를 기억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신 그분.
인내의 삶을 가르쳐 주신 그분.
소망의 나래를 펴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합니다

강남노회 제21회 정기회

서울 강남노회 제 21회 정기회가 11월 4일 초
원교회당에서 열린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종운
목사를 비롯한 부목사 전원과 이웅선·박철
훈·홍정호·최종시·윤봉준·오정수 장로가
총대로 참석한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 '97 비전2000운동 태신자 명단 (다음 호에 계속)

'건축을 위한 바자' 목표액 접근

바자준비위원회에서는 이번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의 수익금이 총 6억 8천 여 만원이
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토지나 증권 또는 귀금속류
와 회원권은 계산되지 않은 것이며 바자에서 남은
물품도 수요자가 있을 경우 계속 매각할 예정이여
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한 것과 12월 말까지의 건축
현금을 합하면 당초 목표였던 12억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자에서 남은 물품 중 그림액자와 작품 등은
교회 복도와 403호실에 전시되어 있으며 구입문의
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 10월 중 건축현금 ▶ 10월 24일 ~ 29일까지 접수된 물품

접수번호	품목	수량	기증자(교구)
311	보험증권	1	한정아(1)
312	은수저세트 외	9	이무남·김구진(11)
313	장난감 외	10	임종원(4)
314	귀금속	2	김선미(11)
315	의류	25	유성호(3)
316	장신구	1000	김대호·남순덕(7)
317	가구	3	박철훈·이경희(11)
318	홈세트	4	성준경·장낙희(3)
319	의류 외	3	이재봉(2)
320	아동복·장난감	110	안정옥(1)
321	개봉물·의류	1·15	홍성주·여현진(8)
322	의류·가정용품	다수	서문석·한준홍(8)
323	건어물	20	한경섭·나금주(3)
324	건어물	10	이승우·서경숙(11)
325	건어물	60	김중복(11)
326	금거북	20	황선호·이순희(1)

이양철 최진희 박순자 임선철·이영주 김영아 김태종 최무순 김성준·김선영 송두심 고윤화 안덕홍 맹성재 최공천
정소자 조정옥 김경호 최재규·천정화·최신의 임승자 김호일 한주찬·김수호 배영애 김영숙 나희주 김명숙 나미용·김진용
김동호·홍준도 김재술 조대영 신기만 임훈규·정경자·임종현 김용숙·한종호·김미혜·한경우·한진우 서영희
김광옥 이강인·허숙 황해자 김진희 윤찬오 김광신·이인선 홍광엽 김인순 이정수 광종철 김운섭·박명석·김정연·김재연
오정수·이영희 박정선·김남순 조옥섭·김진호 이옥현 한정아 조형규 하영수·박정순 최진희 김중근·최혜순
고기성·박분옥·고아라·고요한 조삼원 최근자 이지은 김옥용 우지원 최완·김승환 김정희 김혜연 박종민
홍성주·여현진·홍지민·홍진선·조옥순 김성준·김선영 강민희 김형택 김진숙 정소진 김세하·김상옥 전기섭 전원의
김권집·왕경애 한종우 손현순 윤요셉 유인정 김명현·황원희 안인호 김현주 이민자 최진희 김중필 심재을 박선주
김훈 진승근·이혜선 이은애 이승희 김홍남 정기동·전정순 박정규·정연택 방계운 정종순 박귀환 김인숙 유형석
이기홍·이영서 김중자·박경옥·박진희·박병옥 김해자 최정자 이복규·한명순 김종운·이종돌 우예린 소정부·강희자
박이준 양옥자 최난수 김관용·정숙자 임광식 이보우·서옥덕 윤봉준 정하자 이순녀 김재술 이진우 이남복 왕경래
고후덕 김명식 김상식 이승우·서경숙 송옥혜·장재영·장혜원·김공숙 김만선·이영현 전인화 임상현·서희숙 장영순
나종영 장애희 김영주 정하자 광숙 김혜경·신동재 신정순 박철환 박선주 이상득 민영수 김정현 민순구 최양태
김명숙 서순영 조옥식·유명석 이영자 박금옥 노인덕 김도연 김세제 임희춘 송인권 유애실 이관례 권영옥 김중운
허정자 서순영 김병숙 하정자 최근숙 이갑연 위성남 최경애 안순이 박두호 김진환 한현숙 광종철 우유명 최재영
전기섭 백해숙 최정숙 백옥우 유신·조상희 김민정 최용걸 이관규 박두영·전행자 이영기 김윤자 이순환 전용순
김규태 스테반회 사랑부 반포1·2·4 다락방 대학부 서초1·2다락방 가브리엘찬양대 사랑의회 에스더 제4전도회
서초3다락방 강남OCU 할렐루야찬양대 성결교회목회연구회 한나 제2전도회 바울 제1선교회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정을순	정상임 나순자 김진락	김정임	김용임	이광열	이태호 황일웅	조정옥	조병성 이영순 조복행
	이상우 김연진	조삼원	조규설 신길순 조민현	이민화	정덕임 노종환 임상원		김용희
이순희	하령자		조기현 조소현		우정자	무 명	송금호 이해익 이용주
황선호	김길중 윤영섭 강관순	이영숙	박중은	무 명	정옥자 최재희		이장주 이봉주
	이상철	김재술	김홍덕 김지희 길승배	오환실	홍미혜	무 명	최관일 김순희 최운영
김윤자	유규호		마호영	김영준	이진영 류한주		최윤호
오유식	문원근	무명	유광호	박이준	박순식 김명세	노영숙	이형로 김준형

동정

- ◆ 박정선 집사(11교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는 한미 작곡교류를 위한 작품 발표차
10월 28일 도미하여 11월 4일 귀국 예정.
- ◆ 나원규·김경희 성도(12교구 수지다락방) 가정은 10일(금) 저녁.
- ◆ 장덕·임인자 집사(1교구 논현다락방) 가정은 28일(화) 'Fila Classic' 반포동점
이전 감사 예배.
- ◆ 지난주일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이종운 목사·홍순복 사모 가정에서 제공.
-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이계홍·성순자 집사 가정에서 제공.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충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97 비전2000운동을 위해
2. 잃은 양들을 찾는 일과 각 부서 배가를 위해
3.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4. 성경암송대회를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